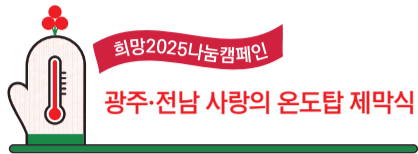


경기 어려울수록 더 커지는 나눔의 손길 '기대'



광주 1%·전남 8% 모금액 상향
5년 전부터 매년 목표 초과달성
개인들 적극적인 기부 동참 호소
"많은 이웃에게 사랑 나눠주길"

두달간의 '나눔캠페인' 대장정에 나선 광주·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가 지난해 대비 모금 목표액을 소폭 상향 조준했다. 사랑의 열매는 경기침체에 따른 기부 문화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눔캠페인' 목표액 달성을 위한 개인 기부 확대가 중요하며 많은 관심과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광주·전남 사랑의 열매는 2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과 무안 삼향읍 전남도청 광장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개최하고 '희망 2025나눔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올해의 모금 목표액은 광주 51억 2000만원과 전남 113억 9000만원으로 전년 목표액(△광주 50억 7000만원 △전남 105억 5000만원) 대비 각각 1%와 8%가 상향될 수 있다.

오랜 지역사회 불경기로 기부 문화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광주·전남 사랑의 열매가 목표액을 상향 조정할 이유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노동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 회장, 박우량 신안군수 등이 2일 전남도청 광장에서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전남을 가치있게' 슬로건 아래 열린 '희망 2025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 온도 올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는 연이은 나눔캠페인 성공에 힘입은 결과다. 지난해 광주·전남의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치인 100도를 넘기며 뜨겁게 달아올랐다.

직전 캠페인인 '희망2024캠페인' 당시 광주·전남은 각각 캠페인 종료 1일, 14일을 앞두고 목표액을 달성했다. 최종 온도는 광주 110.4도(55억 9800만 원), 전남

118.6도(125억 1000만원)에 달하는 등 '떨떨' 끊었다.

지역 기업·기관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에 광주·전남은 5년 전에 진행된 '희망2020나눔캠페인'부터 매년 목표를 초과달성하며,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하고 있다. 지역에서 모금된 기부액은 해당 지역에서 배분되는 것이 특징인 만큼 '나

눔캠페인'은 지역민들의 복지 증진에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매년 목표액을 상회하는 모금 실적을 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기부 문화의 지속성과 자립성을 위해서는 개인들의 적극적인 기부 동참이 필요하다. 경기침체로 기업 등의 대규모 기부가 줄더라도, 개인의 꾸준한 참여는 안정적인 기부 기반을 제

공하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 기부는 소액이라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예측 가능한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사랑의 열매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

광주·전남 사랑의 열매는 실시일반 모인 소중한 성금을 광주·전남지역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기초생계 지원', '교육·자립 지원', '주거·환경 개선', '보건·의료 지원', '심리·정서 지원', '사회적 돌봄 강화',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등 8개 배분 분야 복지사업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 사랑의 열매 관계자는 "지역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기부채원기반이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 기업 및 법인 기부에 비해 개인기부 비율은 다소 부족한 실정"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이번 캠페인에 관심을 가지고 기부로 참여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전남 사랑의 열매 관계자도 "이번 나눔 캠페인 동안 도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모여 이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큰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불씨를 키워 사랑의 온도 100도가 달성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작은 손길이 모여 따뜻한 사회 만들어지길"

임은숙 도날드어린이집 원장
13년째 매달 3만원씩 개인기부

"아이들과 지역사회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이 일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아이들이 나눔의 가치를 배우며 자라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쁩니다."

광주에서 10년 넘게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기부를 실천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는 임은숙(사진) 도날드어린이집 원장의 기부 소감이다.

임 원장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매달 3만원씩 광주·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착한가게' 캠페인에 참여하며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임 원장은 아이들에게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심어주고자 기부에 나섰다.

그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단순히 교육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결돼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

다"며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싶은 마음에 어린이집 이름으로 기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꾸준히 기부를 하다 보니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다"고 밝게 웃었다.

그는 어른들의 기부 경험을 보면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어른으로 자라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임 원장은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의 행동이 가장 큰 가르침이 된다"며 "내가 실



전으로 보여주고, 그 경험이 아이들에게 스며들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어린이집 운영이 때론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원아 수나 운영비 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임 원장은 꾸준히 기부를 이어가고 있었다.

임 원장은 "사실 어린이집 운영이 항상 여유로운 것은 아니다"며 "운영이 힘들 때는 기부를 이어가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그래도 지속적으로 기부를 이어나가는 모범을 보여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지역사회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다는 생각에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기부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월 3만원씩 약 13년째 기부를 이어가고 있는 임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동안 계속 기부를 실천하는 게 목표다.

그는 "기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며 "기부는 생각보다 작은 실천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일이다. 많은 금액이 아니라더라도 이웃을 위해 곳곳에서 따뜻한 손길이 이어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성아 기자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티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 어린이집 · 유치원 · 한옥 내 · 외부 · 방바닥 · 전원주택 · 경로당 · 아파트 · 펜션 · 찜질방 · 카페 · 휴집
- 외벽 · 목재 · 양어장 · 물탱크 · 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 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 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숯,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엄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